

고1 국어  
신사고

## 2022 고1 국어 신사고 | 6(1)(1)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출제 유형 베스트

1.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
2.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3.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과 관련 있는 문제

## 지문 분석 – 알아 두기

## 문학 작품의 주제적 해석과 평가

동일한 문학 작품이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 감상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 ]**(작품의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 : 작품의 해석과 평가는 주관적 행위임 ]** **[ 이처럼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주관적 행위이지만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 **[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상의 근거로 활용된 작품의 요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작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타인의 평가를 따르거나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 보거나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교 ]**(작품을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세워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야 함, **[ 작년과 마찬가지로 타당한 근거를 세워 작품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 작품을 감상한 뒤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 ]**(감상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써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때 **[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다른 점을 비교하며 평가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①, 자신의 해석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비교함 →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음)하도록 한다. 더불어 **[ 자신이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②,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방법)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고 생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 ] : 자신의 감상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음,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 지문 분석 –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구두 닦는 사람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①, 일반적으로 선망하는 일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닦거나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 **[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두 닦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시적 대상이 가리키는 인물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을 보면(반복: 운율 형성)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동일한 시구의 반복 → 운율 형성, 1~4연까지 규칙적인 반복과 변화를 통해 운율을 형성함,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시적 대상들의 손에 주목하여 그들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구두 끝(관심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반복: 운율 형성) ]([ ]: 시선을 점점 좁혀가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각함)

**[ 겁은 것**(색채 이미지,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 ①)에서도 **빛이 난다.**(구두 닦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 가치 있게 만듦)

**흰 것**(색채 이미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①)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 ]: 대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냄  
- 모든 것들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음(빛이 남), 단호한 독백체로 화자의 생각을 드러냄, **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의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1연: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창문 닦는 사람**(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②,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들을 나열하고 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동일한 시구의 반복)

창문 끝을 보면

**[ 비누 거품 속**(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 ②)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②)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 ]: 대조, **시의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대조적 의미의 시구를 제시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각하였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2연: 창문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청소하는 사람**(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③,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묻는 문제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들로서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동일한 시구의 반복)

길 끝을 보면

**[ 쓰레기 속**(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 ③)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③)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 ]: 대조)

▶ 3연: 청소하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 마음**(외면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 닦는 사람 ]([ ]: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④ – 내면적·참된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 **작년과 달리 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마음 닦는 사람'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동일한 시구의 반복)

마음 끝을 보면

**[ 보이지 않는 것**(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 ④, 마음·내면적 가치)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④, 외향적 가치)만이 빛은 아니다. ]([ ]: 대조,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님)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닦는' 행위의 의미: 무언가에 빛을 내서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시의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을 통해 각 연의 구조적 통일성을 깨뜨리면서 대상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4연: 마음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 성자(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임을 강조함) [([ ]):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성자처럼 거룩한 존재임 → 예찬적 태도, 작가의 개성적 인식과 삶에 대한 성찰이 돌보임,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시적 대상을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 5연: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청소부
  -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지문 분석 – 국어 힘 펼치기

김○○ 씨는 **공장에서 지게차를 끌며**(김 씨의 원래 직업) 모은 돈으로 자신의 꿈이던 세계 일주를 떠났다. 김 씨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팔의 한 교사를 만났다. 이 교사는 김 씨에게 “네팔의 **강진**(진도 5의 강한 지진, 벽이 갈라지고 비석 등이 넘어지며 굴뚝과 토담이 무너질 정도임) 때문에 우리 학교 제자 수십 명이 죽었다. 무너진 우리 학교를 도와 달라.”라며 눈물을 흘렸다. [ 김 씨는 **가난한 여행자**(김 씨의 처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 ]: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기 전 김 씨가 한 생각)

▶ 네팔에 가던 중 네팔의 한 교사를 만나게 된 김 씨 하지만 카트만두 숙소 옆에서 **자기 몸보다 큰 삶을 들고 건물 잔해를 치우는 꼬마를 보자**(김 씨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 생각이 달라졌다. 흙투성이 손으로 벽돌까지 나르던 네 살짜리 아이의 이름은 ‘로젠’이었다. **김 씨는 로젠의 사진과 함께 도움을 청하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렸다.**(여행자 신분의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 → 로젠을 위해 크진 않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함) 30여 명이 40만 원을 보내 주었다. 그 돈으로 **로젠과 로젠 누나의 2년치 학교 등록금을 내줄 수 있었다.**(김 씨가 로젠에게 준 도움 ①)

▶ 누리소통망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준 김 씨 [ 김 씨는 **세계 여행**(김 씨의 꿈)을 계속하면서도 네팔을 응원하는 각국 사람들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았다. 그리고 **기금**(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따위에 쓸 기본적인 자금. 또는 기초가 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신이 찍은 여행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 보내 주는 모금 활동도 하였다. ]([ ]: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줌, ‘마음 닦는 사람’이 가리키는 인물을 묻는 문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는 네팔로 다시 돌아가 모금액으로 **로젠이 다니는 학교의 무너진 도서관을 새로 지어 줄 수 있었다.**(김 씨가 로젠에게 준 도움 ②) 김 씨는 “배달 일과 지게차 운전을 하던 나 같은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라며 “**내 꿈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기뻤다.**”(타인을 도움으로써 행복의 의미를 찾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알고 행동에 옮김)라고 하였다.

- ▶ 세계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네팔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김 씨
  - ××일보 2016년 9월 14일 자

연계 작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너에게 묻는다」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의 '검은 것'과 '흰 것'처럼 「너에게 묻는다」는 '연탄재'와 '너'라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음

사과를 먹는다 /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 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으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 「사과를 먹으며」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두 작품 모두 주변의 관찰 대상을 낯설게 바라보기의 방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음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그리곤 당신들의 유리 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창문, 창문……  
창문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골의 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두 작품 모두 일상적인 생활을 제재로 하여 대구와 반복을 활용하고 있음
- 교훈적 성격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달리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의 '닦는 행위'는 의미를 찾는 행위의 삶,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의 '닦는 행위'는 단절된 공간에서 벗어나 소통하고 싶은 삶을 의미함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나가 보니 아낙네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씨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의 등에 업힌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보이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를 들렀습니다

진흙길을 따라가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당신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빨밭에서 흙투성이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찾은 것은 연뿌리보다 질기고 뻣센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삽에 찍힌 연뿌리의 통체에서 굵다란 물관 구멍을 통해 사라진 것은 도로(徒勞)뿐인 한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목청을 다해 불러도 한사코 당신은 삽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 「당신」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 독백체를 통해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것과 달리, 「당신」은 말을 건네는 대화체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함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병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의 「빛나는 것」과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의 「노다지」는 모두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함

- 두 작품 모두 「가치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달리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의 화자는 모든 순간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

우리 어머니 나를 가르치며  
잘못 가르친 것 한 가지  
일꾼에게 궂은일 시켜 놓고  
봐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된다  
똑지게 진다

- 「똑지게」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두 작품의 시적 대상들은 모두 사람들이 보잘 것 없다고 여기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로, 두 작품의 시적 화자들은 그러한 직업의 가치를 알아 본 인물임
- 「똑지게」는 대화체를 통해 화자가 어머니의 말에서 발견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만 허둥거리며 살아왔다. 차근히 한 층, 한 층 밟아야만 할 과정을 다 밟고 올라가는 성실한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거나, 또는 약삭빠르게 잔재주로 앞지르려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었다. 얼마나 높게 오르느냐 하는 것만을 고개 들어 쳐다보았기에, 쉽게 오르려 했었다. 끝이 있는 삶의 계단에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이제야, 힘이 드는 나이에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립 중앙 박물관의 높은 돌계단이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내 삶의 성실성을 시험해 보는 것처럼 보인다.

- 「돌층계」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두 작품 모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음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 아님에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성실함을, 「돌층계」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음

## 지문 확인 – 알아 두기

## 문학 작품의 주제적 해석과 평가

동일한 문학 작품이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 감상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작품의 \_\_\_\_\_과 \_\_\_\_\_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 작품의 \_\_\_\_\_과 \_\_\_\_\_는 \_\_\_\_\_ 적 행위임 ]** [ 이처럼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주관적 행위이지만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작품에 대한 \_\_\_\_\_과 \_\_\_\_\_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상의 근거로 활용된 작품의 요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작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타인의 평가를 따르거나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 보거나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교**(작품을 \_\_\_\_\_하는 바람직한 태도,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_\_\_\_\_ 적으로 \_\_\_\_\_하고 \_\_\_\_\_ 하는 방법)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제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 ): 문학 작품을 \_\_\_\_\_ 할 때는 타당한 \_\_\_\_\_를 세워 \_\_\_\_\_ 적으로 \_\_\_\_\_하고 \_\_\_\_\_ 해야 함, **작년과 마찬가지로 타당한 근거를 세워 작품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 문학 작품을 \_\_\_\_\_ 적으로 \_\_\_\_\_하고 \_\_\_\_\_ 하는 방법

**[ 작품을 감상한 뒤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_\_\_\_\_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써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다른 점을 비교하며 평가**(문학을 \_\_\_\_\_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①, 자신의 \_\_\_\_\_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_\_\_\_\_ 함 → \_\_\_\_\_ 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음)하도록 한다. 더불어 **자신이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문학을 \_\_\_\_\_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②,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방법)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고 생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 ): 자신의 \_\_\_\_\_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_\_\_\_\_ 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음,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문학을 \_\_\_\_\_ 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 지문 확인 –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구두 닦는 사람]**(화자가 \_\_\_\_\_ 있게 여기는 존재 ①, 일반적으로 \_\_\_\_\_하는 일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_\_\_\_\_거나 \_\_\_\_\_하게 하는 사람들 → 자신의 일을 \_\_\_\_\_하게 수행하며 \_\_\_\_\_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두 닦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시적 대상이 가리키는 인물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보면**(\_\_\_\_\_ : 운율 형성)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동일한 시구의 \_\_\_\_\_ → \_\_\_\_\_ 형성, 1~4연까지 규칙적인 \_\_\_\_\_과 \_\_\_\_\_를 통해 \_\_\_\_\_을 형성함,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시적 대상들의 \_\_\_\_\_에 주목하여 그들의 \_\_\_\_\_를 부각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구두 끝(\_\_\_\_\_)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_\_\_\_\_ : 운율 형성) **[ ( ): \_\_\_\_\_을 점점 좁혀가면서 \_\_\_\_\_하고자 하는 내용을 \_\_\_\_\_ 함]**

**[ 검은 것]**(\_\_\_\_\_ 이미지, 사람들이 \_\_\_\_\_다고 여기는 것 ①)에서도 **빛이 난다.**(구두 닦는 사람이 \_\_\_\_\_을 다해 \_\_\_\_\_ 있게 만듦)

**[ 흰 것]**(\_\_\_\_\_ 이미지, 사람들이 \_\_\_\_\_ 있다고 여기는 것 ①)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 ( ): \_\_\_\_\_를 통해 주제를 드러냄 – 모든 것들에는 저마다의 \_\_\_\_\_가 있음(\_\_\_\_이 남), 단호한 \_\_\_\_\_체로 화자의 \_\_\_\_\_을 드러냄, **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_\_\_\_\_적인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의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 1연: \_\_\_\_\_는 사람에게서 \_\_\_\_\_이 남

**창문 닦는 사람**(화자가 \_\_\_\_\_ 있게 여기는 존재 ②, 화자가 \_\_\_\_\_ 있게 여기는 존재들을 나열하고 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동일한 시구의 \_\_\_\_\_)

창문 끝을 보면

[ **비누 거품 속**(사람들이 \_\_\_\_\_다고 여기는 것 ②)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사람들이 \_\_\_\_\_ 있다고 여기는 것 ②)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 [ ]]: \_\_\_\_\_, 시의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_\_\_\_\_적 의미의 시구를 제시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각하였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2연: \_\_\_\_\_는 사람에게서 \_\_\_\_\_이 남

**청소하는 사람**(화자가 \_\_\_\_\_ 있게 여기는 존재 ③,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묻는 문제에서 '자신의 일 \_\_\_\_\_하게 수행하는 이들로서 저마다 \_\_\_\_\_나는 \_\_\_\_\_를 지닌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동일한 시구의 \_\_\_\_\_)

길 끝을 보면

[ **쓰레기 속**(사람들이 \_\_\_\_\_이라고 여기는 것 ③)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사람들이 \_\_\_\_\_ 있다고 여기는 것 ③)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 [ ]]: \_\_\_\_\_)

▶ 3연: \_\_\_\_\_는 사람에게서 \_\_\_\_\_이 남

[ **마음**(\_\_\_\_\_적 \_\_\_\_\_보다 중요한 것) 닦는 사람 ]([ [ ]]: 화자가 \_\_\_\_\_ 있게 여기는 존재 ④ - \_\_\_\_\_적·참된 \_\_\_\_\_에 주목하는 사람, **작년과 달리** 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마음 닦는 사람'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동일한 시구의 \_\_\_\_\_)

마음 끝을 보면

[ **보이지 않는 것**(사람들이 \_\_\_\_\_이라고 여기는 것 ④, \_\_\_\_\_ 적 \_\_\_\_\_)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사람들이 \_\_\_\_\_ 있다고 여기는 것 ④, \_\_\_\_\_ 적 \_\_\_\_\_)만이 빛은 아니다. ]([ [ ]]: \_\_\_\_\_,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님)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닦는’ 행위의 의미: 무언가에 \_\_\_\_\_을 내서 더욱 \_\_\_\_\_ 있게 만드는 것, 시의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을 통해 각 연의 구조적 \_\_\_\_\_을 깨뜨리면서 대상의 행위에 \_\_\_\_\_를 부여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4연: \_\_\_\_\_는 사람에게서 \_\_\_\_\_이 남

[ **성자**(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자신이 맑은 일을 \_\_\_\_\_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만큼 \_\_\_\_\_가 있는 일임을 강조함) ]([ [ ]]: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_\_\_\_\_처럼 거룩한 존재임 → 예찬적 태도, \_\_\_\_\_의 개성적 \_\_\_\_\_과 삶에 대한 \_\_\_\_\_이 들통임,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시적 대상을 일반적 인식과는 \_\_\_\_\_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5연: \_\_\_\_\_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_\_\_\_\_  
-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지문 분석 – 국어 힘 펼치기

김○○ 씨는 **공장에서 지게차를 끌며**(김 씨의 원래 ...) 모은 돈으로 자신의 꿈이던 세계 일주를 떠났다. 김 씨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팔의 한 교사를 만났다. 이 교사는 김 씨에게 “네팔의 **강진**(진도 5의 강한 지진, 벽이 갈라지고 비석 등이 넘어지며 굴뚝과 토탐이 무너질 정도임) 때문에 우리 학교 제자 수십 명이 죽었다. 무너진 우리 학교를 도와 달라.”라며 눈물을 흘렸다. [ 김 씨는 **가난한 여행자**(김 씨의 ...)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 ]: \_\_\_\_\_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기 전 김 씨가 한 \_\_\_\_)

▶ \_\_\_\_\_에 가던 중 \_\_\_\_\_의 한 \_\_\_\_\_를 만나게 된 김 씨  
 하지만 카트만두 숙소 옆에서 **자기 몸보다 큰 삽을 들고 건물 잔해를 치우는 꼬마를 보자**(김 씨의 생각이 \_\_\_\_\_  
 \_\_\_\_\_게 된 계기) 생각이 달라졌다. 흙투성이 손으로 벽돌까지 나르던 네 살짜리 아이의 이름은 ‘로젠’이었다. **김 씨는 로젠의 사진과 함께 도움을 청하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렸다.**(\_\_\_\_\_ 신분의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  
 → 로젠을 위해 크진 않지만 자신이 \_\_\_\_\_는 일을 함) 30여 명이 40만 원을 보내 주었다. 그 돈으로 **로젠과 로젠 누나의 2년치 학교 등록금을 내줄 수 있었다.**(김 씨가 로젠에게 준 ①)

▶ \_\_\_\_\_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준 김 씨  
 [ 김 씨는 **세계 여행**(김 씨의 꿈)을 계속하면서도 네팔을 응원하는 각국 사람들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았다.  
 그리고 **기금**(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따위에 쓸 기본적인 자금. 또는 기초가 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신이 찍은 여행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 보내 주는 모금 활동도 하였다. ]([ ]: 자신의 \_\_\_\_\_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_\_\_\_\_을 줌, ‘마음 닦는 사람’이 가리키는 인물을 묻는 문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_\_\_\_\_이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는 네팔로 다시  
 돌아가 모금액으로 **로젠이 다니는 학교의 무너진 도서관을 새로 지어 줄 수 있었다.**(김 씨가 로젠에게 준 ②)  
 ② 김 씨는 “배달 일과 지게차 운전을 하던 나 같은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라며  
**“내 꿈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기뻤다.”**(\_\_\_\_\_을 \_\_\_\_\_으로써 \_\_\_\_\_의 의미를 찾음, 자신이  
 하고 있는 \_\_\_\_\_의 \_\_\_\_\_를 알고 행동에 옮김)라고 하였다.

▶ \_\_\_\_\_을 계속하면서도 네팔의 아이들에게 \_\_\_\_\_을 준 김 씨  
 – ××일보 2016년 9월 14일 자

## 연계 작품 확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너에게 묻는다」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의 ‘\_\_\_\_\_’과 ‘\_\_\_\_\_’처럼 「너에게 묻는다」는 ‘\_\_\_\_\_’와 ‘\_\_\_\_\_’라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음

사과를 먹는다 /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 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불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으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 「사과를 먹으며」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두 작품 모두 주변의 관찰 대상을 \_\_\_\_\_의 방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음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블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그리곤 당신들의 유리 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창문, 창문……  
창문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골의 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두 작품 모두 \_\_\_\_\_을 제재로 하여 \_\_\_\_\_와 \_\_\_\_\_을 활용하고 있음
- \_\_\_\_\_적 성격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달리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는 현실에 대한 \_\_\_\_\_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의 '닦는 행위'는 \_\_\_\_\_는 행위의 삶,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의 '닦는 행위'는 \_\_\_\_\_된 공간에서 벗어나 \_\_\_\_\_하고 싶은 삶을 의미함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나가 보니 아낙네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씨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의 등에 업힌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보이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를 들렸습니다

진흙길을 따라가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당신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뺨밭에서 흙투성이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찾은 것은 연뿌리보다 질기고 뻣센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삽에 찍힌 연뿌리의 동체에서 굵다란 물관 구멍을 통해 사라진 것은 도로(徒勞)뿐인 한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목청을 다해 불러도 한사코 당신은 삽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 「당신」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 \_\_\_\_\_를 통해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것과 달리, 「당신」은 말을 건네는 \_\_\_\_\_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함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병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의 「\_\_\_\_\_」과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의 「\_\_\_\_\_」는 모두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함
- 두 작품 모두 「\_\_\_\_\_」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달리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의 화자는 모든 순간들이 \_\_\_\_\_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과거에 대해 \_\_\_\_\_하고 있음

우리 어머니 나를 가르치며

잘못 가르친 것 한 가지

일꾼에게 굿은일 시켜 놓고

봐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된다

똥지게 진다

- 「똥지게」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두 작품의 시적 대상들은 모두 사람들이 \_\_\_\_\_고 여기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로, 두 작품의 시적 화자들은 그러한 직업의 \_\_\_\_\_를 알아 본 인물임
- 「똥지게」는 \_\_\_\_\_를 통해 화자가 \_\_\_\_\_의 말에서 발견한 \_\_\_\_\_을 드러내고 있음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만 허둥거리며 살아왔다. 차근히 한 층, 한 층 밟아야만 할 과정을 다 밟고 올라가는 성실한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거나, 또는 약삭빠르게 잔재주로 앞지르려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었다. 얼마나 높게 오르느냐 하는 것만을 고개 들어 쳐다보았기에, 쉽게 오르려 했었다. 끝이 있는 삶의 계단에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이제야, 힘이 드는 나이에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립 중앙 박물관의 높은 돌계단이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내 삶의 성실성을 시험해 보는 것처럼 보인다.

- 「돌층계」

★ 「그 사람의 손을 보면」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두 작품 모두 주변에서 \_\_\_\_\_는 대상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음
-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은 \_\_\_\_\_의 대상이 아님에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_\_\_\_\_을, 「돌층계」는 \_\_\_\_\_보다 \_\_\_\_\_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음

고1 국어  
신사고

## 2022 고1 국어 신사고 | 6(1)(1)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암기용

## 1. 제재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교훈적, 사색적
어조	단정적, 예찬적
제재	다양한 사람들의 손
주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시어나 시구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li> <li>대조적 의미의 시구를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함.</li> <li>성자와 청소부를 같은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냄</li> </ul>

## 2. 화자가 주목하는 시적 대상과 그 의미

- 구두 닦는 사람
- 창문 닦는 사람
- 청소하는 사람



→ 일반적으로 선망하는 일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임  
→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들로서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임

## 3. 시의 문장 구조

'……는 사람을 보면 /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 끝을 보면 / ……에서도 빛이 난다. / ……  
만이 빛나는 것(빛)은 아니다.'

1연부터 4연까지 규칙적인 반복과 변화를 즘

## 4. 대립되는 시어에 담긴 의미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
• 검은 것
• 비누 거품
• 쓰레기
•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 흰 것
• 맑은 것
• 깨끗한 것
• 보이는 빛

## 5. '닦는' 행위에 담긴 의미

-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나게 함
-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나게 함
-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나게 함
-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나게 함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닦는' 행위는 무언가에 빛을 내서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TEST 1단계

## 1. 제재 개관

갈래	<input type="checkbox"/> 유시, 서 <input type="checkbox"/> 시
성격	교 <input type="checkbox"/> 적, <input type="checkbox"/> 색적
어조	<input type="checkbox"/> 정적, 예 <input type="checkbox"/> 적
제재	다양한 사람들의 <input type="checkbox"/>
주제	자신이 맡은 일을 성 <input type="checkbox"/> 하게 수행하는 <input type="checkbox"/> 의 <input type="checkbox"/> 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input type="checkbox"/>어나 시<input type="checkbox"/>와 유사한 <input type="checkbox"/>장 <input type="checkbox"/>조를 반<input type="checkbox"/>하여 운<input type="checkbox"/>을 형성함.</li> <li><input type="checkbox"/>조적 의미의 시구를 제시하여 주<input type="checkbox"/>를 부<input type="checkbox"/>함.</li> <li><input type="checkbox"/>자와 <input type="checkbox"/>소<input type="checkbox"/>를 같은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주<input type="checkbox"/>를 드러냄</li> </ul>

## 2. 화자가 주목하는 시적 대상과 그 의미

- 구 닦는 사람
- 문 닦는 사람
- 청하는 사람

→ 일반적으로 선하는 일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닦아서 끗하게 하는 사람들임  
→ 자신의 일을 성하게 수하는 이들로서 저마다 빛나는 치를 지닌 사람들임

## 3. 시의 문장 구조

'……는 사람을 보면 /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 끝을 보면 / ……에서도 빛이 난다. / ……  
만이 빛나는 것(빛)은 아니다.'  
연부터 연까지 규칙적인 복과 변를 즘

## 4. 대립되는 시어에 담긴 의미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	↔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은 것</li> <li>비<input type="checkbox"/> 거품</li> <li><input type="checkbox"/>례<input type="checkbox"/></li> <li><input type="checkbox"/>이지 <input type="checkbox"/>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것</li> <li><input type="checkbox"/>은 것</li> <li><input type="checkbox"/>끗한 것</li> <li><input type="checkbox"/>이는 <input type="checkbox"/></li> </ul>

## 5. '닦는' 행위에 담긴 의미

- 은 것에서도 이 나게 함
- 비 거품 속에서도 이 나게 함
- 례 속에서도 이 나게 함
- 이지 는 것에서도 이 나게 함

'는 것은 을 내는 일'

↓  
'는' 행위는 무언가에 을 내서 더욱 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가 있음

## 6. 화자의 태도

'자가 된 소'

화자는 소를 자와 같이 거하고 륭한 존재로 바라보는 예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TEST 2단계

## 1. 제재 개관

갈래	□□□, □□□
성격	□□적, □□적
어조	□□적, □□적
제재	다양한 사람들의 □
주제	자신이 맡은 일을 □□하게 수행하는 □의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나 □□와 유사한 □□ □□를 □□하여 □□을 형성함.</li> <li>□□적 의미의 시구를 제시하여 □□를 □□함.</li> <li>□□와 □□□를 같은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를 드러냄</li> </ul>

## 2. 화자가 주목하는 시적 대상과 그 의미

- 닦는 사람
- 닦는 사람
- 하는 사람

→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닦아서 □□하게 하는 사람들임  
→ 자신의 일을 □□하게 □□하는 이들로서 저마다 빛나는 □□를 지닌 사람들임

## 3. 시의 문장 구조

'……는 사람을 보면 /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 끝을 보면 / ……에서도 빛이 난다. / ……  
만이 빛나는 것(빛)은 아니다.'  
□연부터 □연까지 규칙적인 □□과 □□를 줌

## 4. 대립되는 시어에 담긴 의미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	↔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것</li> <li>□□ □□</li> <li>□□□</li> <li>□□□ □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것</li> <li>□□ 것</li> <li>□□□ 것</li> <li>□□□ □</li> </ul>

## 5. '닦는' 행위에 담긴 의미

- 것에서도 □이 나게 함
  - □□ 속에서도 □이 나게 함
  - 속에서도 □이 나게 함
  - □는 것에서도 □이 나게 함
- '□□ 것은 □을 내는 일'

↓  
'□□' 행위는 무언가에 □을 내서 더욱 □□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 있음

## 6. 화자의 태도

'□□가 된 □□□'

화자는 □□□를 □□와 같이 □□하고 □□한 존재로 바라보는 □□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TEST 3단계

## 1. 제재 개관

갈래	_____, _____
성격	____적, ____적
어조	____적, ____적
제재	다양한 사람들의 __
주제	자신이 맡은 일을 __하게 수행하는 __의 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__나 __와 유사한 __를 __하여 __을 형성함.</li> <li>__적 의미의 시구를 제시하여 __를 __함.</li> <li>__와 __를 같은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__를 드러냄</li> </ul>

## 2. 화자가 주목하는 시적 대상과 그 의미

• __ 닦는 사람
• __ 닦는 사람
• __ 하는 사람

→ 일반적으로 \_\_하는 일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닦아서 \_\_하게 하는 사람들임  
→ 자신의 일을 \_\_하게 \_\_하는 이들로서 저마다 빛나는 \_\_를 지닌 사람들임

## 3. 시의 문장 구조

'.....는 사람을 보면 /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 끝을 보면 / .....에서도 빛이 난다. / ..... 만이 빛나는 것(빛)은 아니다.'  _연부터 _연까지 규칙적인 __과 __를 줌
---

## 4. 대립되는 시어에 담긴 의미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	↔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 __ 것 • _____ • _____ • _____는 것		• __ 것 • _____ • _____ 것 • _____

## 5. '닦는' 행위에 담긴 의미

• __ 것에서도 __이 나게 함 • _____ 속에서도 __이 나게 함 • _____ 속에서도 __이 나게 함 • _____는 것에서도 __이 나게 함  '__ 것은 __을 내는 일'
↓ '__ 행위는 무언가에 __을 내서 더욱 __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__가 있음'

## 6. 화자의 태도

'__가 된 __'
↓ 화자는 __를 __와 같이 __하고 __한 존재로 바라보는 __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